

오늘의 화합
모두를 위한
꽃길을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할 때
도로는 아름다운 꽃길이 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기술지원, 교통사고조사, 교통안전교육·홍보, tbn교통방송, 운전면허 관리,
교통과학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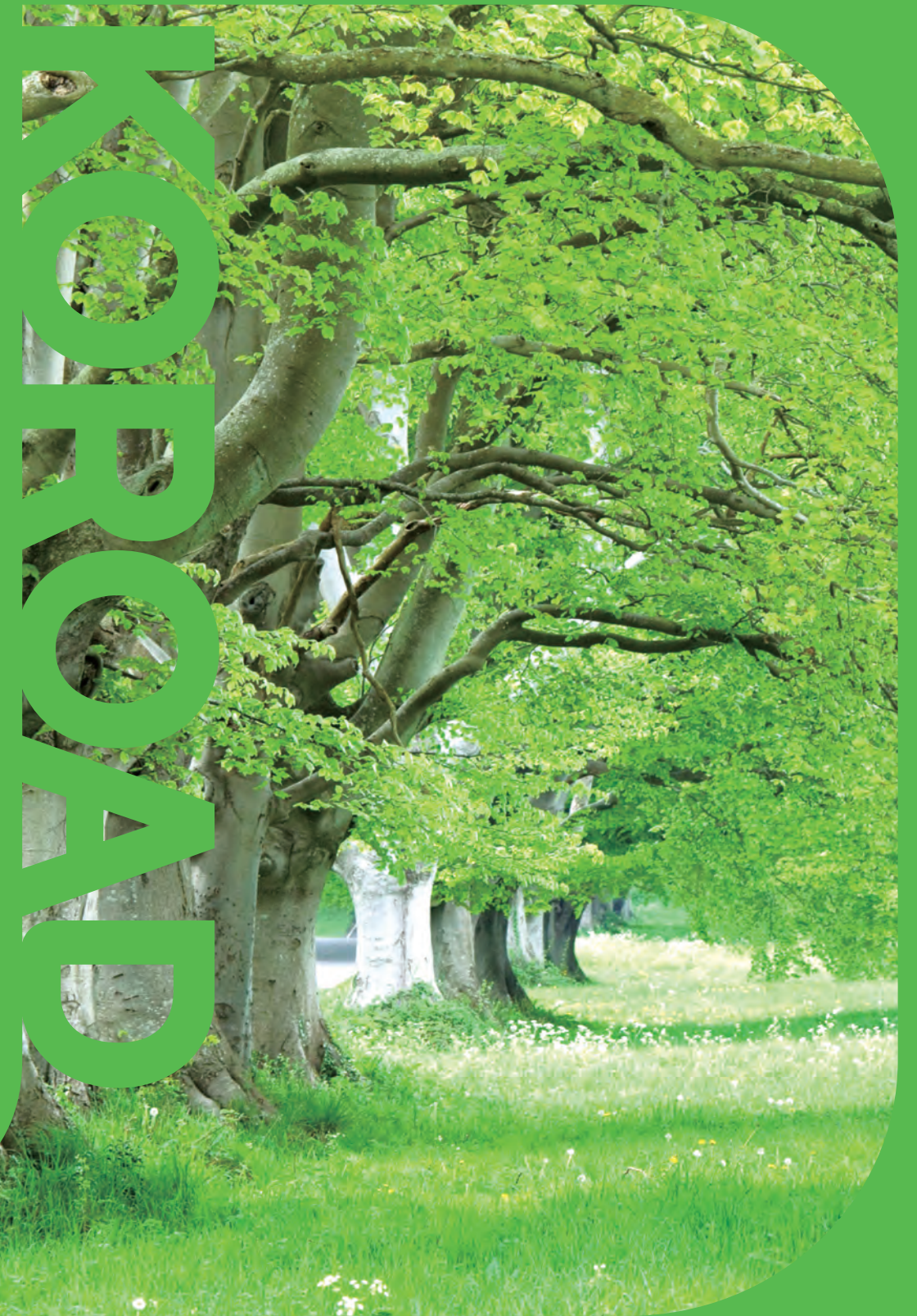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KOROAD BIMONTHLY MAGAZINE

진너 비

2025 5+6월호 VOL.487

2025 5+6월호
VOL.487



신호등
KOROAD BIMONTHLY MAGAZINE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화합하는 마음으로

도로 다시 보기



별이 따사로운 5월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온통 생명의 색으로 물듭니다.
무채색 겨울을 지나, 빨강, 노랑, 연두로
물든 거리와 공원은 새 계절의 시작을
알리며 우리를 반깁니다.

자연이 그리하듯, 우리네 삶도 다양한 색채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더욱 아름답고 조화로워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세상은 한층
더 따뜻하고 넉넉해집니다.

이 따뜻한 화합의 마음이 도로 위에서도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자동차와 자전거,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모양도 쓰임도 다르지만, 서로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길을 나눈다면 도로는 더욱 안전하고
조화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마음이 모여, 모두가 안심하며
건고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갑니다.
도로 위에서 배려하는 한순간, 양보하는
한순간이 더해질 때 우리의 일상도
더욱 따뜻해질 겁니다.

화합의 따스함,
우리가 찾아야 할 가치입니다.

신호등

포켓뉴스 안내
자주 헛갈리는 교통법규나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교통안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신호등 오디오 E-BOOK
QR코드를 촬영하면 오디오북으로 신호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통권 제487호
발행일 2025년 5월 8일
등록일 1980년 8월 22일
창간일 1980년 9월 30일
발행처 한국도로교통공단
발행인 김희중
편집인 엄관식
주소 2646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
전화 033-749-5085
제작·디자인 경성문화사
외부 감수 황준승



12

[특집] 도로 다시 보기: 화합하는 마음으로

- 06 **약속해요 안전운전**
모두가 어울리는 공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도로
- 10 **사고 보고서**
봄철 불청객 졸음운전을 이겨내는 방법
- 12 **신호등 인사이트**
이철기 아주대학교 교통·모빌리티대학원장
- 16 **교통안전 퀴즈**
퀴즈로 알아보는 교통안전 상식



배 - 움 - 길

- 18 **슬기로운 운전 생활**
교통안전 교육센터 100% 활용하기
- 20 **죄와 벌**
두 번째 충돌
- 24 **내 차 사용법**
다양한 자동차 구매 방법
- 26 **미래 도로 설명서**
밤길 안전을 책임지는 자체 발광 도로
- 30 **호동이 안전툰**
3화 졸음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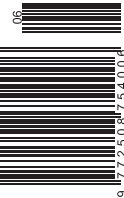
실 - 천 - 길

- 32 **팔도강산 한 바퀴**
봄의 향긋함을 닮은 낭만도시 춘천
- 38 **지금, 여기**
꽃양귀비 군락지
- 40 **교통법규 이야기**
세상에 이런 교통수단이?!
- 42 **교통안전 실천 학습장**
지능형 교통 체계
- 46 **시선 차이**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의 시선 차이
- 48 **안전 수칙 365**
횡단보도 보행 안전 수칙



나 - 눕 - 길

- 50 **KOROAD, CO-ROAD**
교통약자의 길을 넓히는 첨단 기술
- 54 **우리집 필라테스**
체중감량에 도움 주는 전신 운동 세 가지
- 56 **KOROAD 게시판**
- 58 **KOROAD 소식**
- 60 **특별이벤트**
- 62 **교통안전 소식**
- 63 **호동이 색칠공부**
- 64 **독자마당**
- 66 **구독 안내**



9 177250 875400 6
ISSN 2508-7541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신호등」에 실린 자료는 사전 동의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호등」에 게재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은 환경부와 국제산림관리협의회에서 '환경인증'을 받은 재생 용지를 사용합니다. 내지는 친환경 재생 펄프(DIP) 함유율이 20% 이상인 제지를 사용해 환경친화적으로 제작합니다. 또한,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알코올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물성 잉크를 잉크로 인쇄했습니다.



FSC
www.fsc.org
FSC® C108816



친환경
환경부



30%
RECYCLED
MATERIAL



ECF
ELEMENTAL
CHLORINE FREE

모두가 어울리는 공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도로

도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통문화, 내가 먼저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2025 약속해요 안전운전 캠페인

2025년 「신호등」은 교통사고 원인 1위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관련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펼칩니다.

1+2월호

배려로 성장하는 초보운전,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3+4월호

교통약자와의 동행,
성숙해지는 교통문화

5+6월호

도로 위 양보,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

7+8월호

운전 중 전방주시, 모두를 위한 약속

9+10월호

햇갈리는 교통신호? 아는 것이 힘!

11+12월호

음주는 금지, 졸음은 휴식

난폭·보복 운전 자가 진단

운전 중 분노를 참지 못해 위협을 가하거나 보복을 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스스로 난폭·보복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자.

1. 운전 중 화가 나면 다른 운전자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다. ☐
2. 화가 날 때 평소보다 과속하는 경향이 있다. ☐
3. 앞차에게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바짝 붙어서 따라간다. ☐
4. 다른 운전자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한 적이 있다. ☐
5. 운전 중 화가 나면 상대 운전자에게 되갚아주기 위해 고의로 서행한다. ☐
6. 운전 중 화가 나면 상대에게 경적을 울린다. ☐
7. 운전 중 불만이 생기면 상대 운전자 뒷거울에 상향등을 반복해서 비추는 일이 잦다. ☐
8.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되받아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
9.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
10.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

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구. 이파인) 난폭·보복 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일부 발췌

0~2개
난폭·보복 운전과는 거리가 먼
착한 운전자입니다!

3~4개
보통 수준. 평화로운 도로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5개 이상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와 공격성을 조절하세요.

화합을 위한 교통안전 상식

통행 우선순위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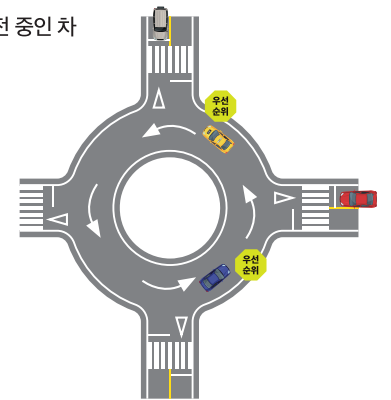
동시 진입 시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



좌회전 하려고 하는 차보다
직진이나 우회전하려는 차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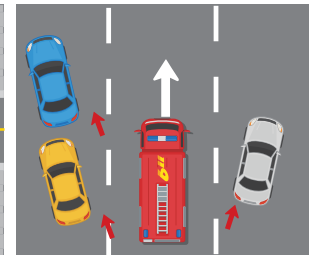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나 교차로 부근



교차로가 아닌 도로

난폭·보복 운전 처벌 사항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정지(40일) 또는 취소 처분

보복 운전

-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정지(100일) 또는 취소처분

난폭운전이란

아래 위반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수행하거나 한 가지를 지속·반복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보복 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예시: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 앞지르기 후 급감속, 급제동을 반복해 위협,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동 등

출처: 2024 교통안전수칙(한국도로교통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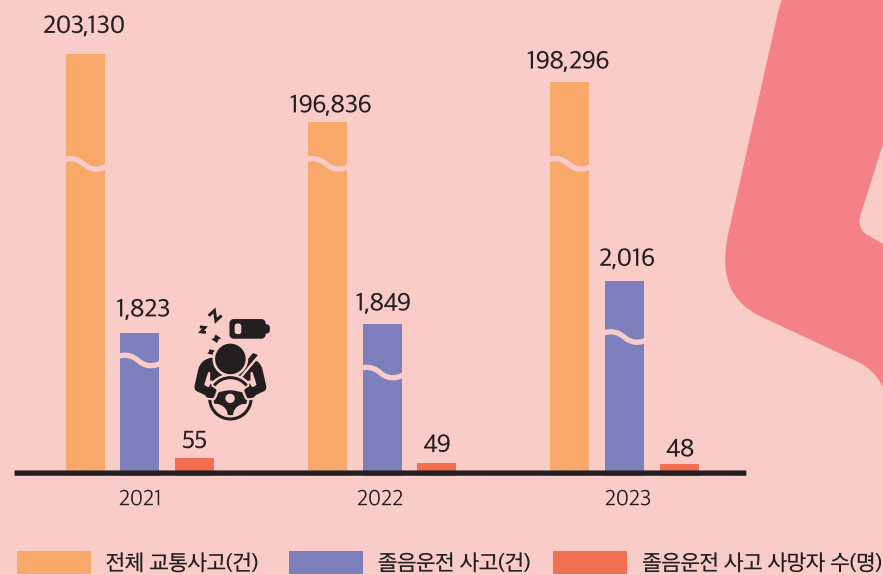
다 함께 떠나요, 모두가 지켜요 봄철 불청객 졸음운전을 이겨내는 방법

나들이 계획이 많은 봄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졸음운전이다. 봄철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졸음운전 사고 현황을 보며 안전 수칙까지 확인해 본다.

글 편집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25.4.11.), 경찰청 보도자료(2024.4.5.)

안전 위협하는 졸음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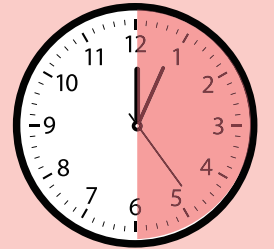
졸음운전 교통사고 현황(2021~2023년)

토요일, 오후 12~6시 사이 가장 위험

졸음운전 **치사율 2.7**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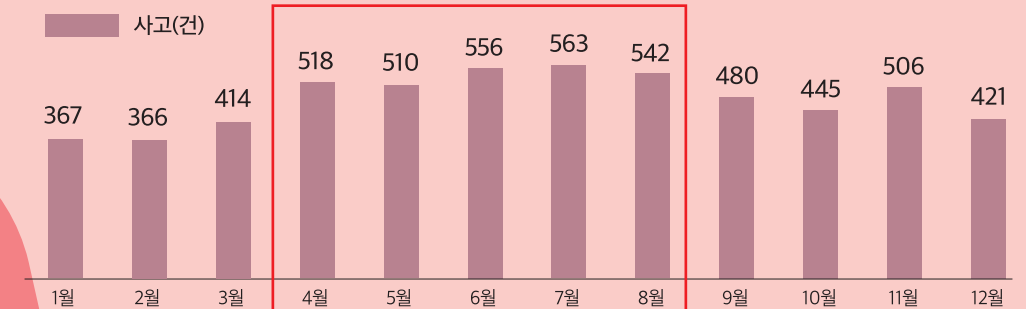
하루 평균 약 **5.2**건 발생

오후 **12~6**시 (1,900건) **33.4%**



지난 3년(2021~2023년)간 졸음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졸음운전은 하루 평균 약 5.2건이 발생했으며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졸음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대비 약 2배에 달해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졸음운전으로 약 3초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할 경우, 시속 60km로 주행 중인 차량은 약 50m를, 시속 100km로 주행 중인 차량은 약 83m를 운전자의 통제 없이 주행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다.

봄철 증가하는 졸음운전 사고



월별 졸음운전 교통사고 현황(2021~2023년 합계)

지난 3년(2021~2023년)간 월별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나들이가 잦아지는 봄부터 졸음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366건이던 졸음운전 사고 건수는 4월부터 500건 이상으로 늘어났고, 장거리 운전이 잦은 봄부터 여름철까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 따듯한 봄철은 자동차 실내 온도가 높아 졸음이 오기 쉽고, 장거리 운전까지 할 경우엔 집중력이 떨어져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졸음운전 예방 수칙

1. 차량 내 수시로 환기하기

졸음 유발 원인 이산화탄소! 잦은 환기로 차량 안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세요.

2. 졸음 쫓는 껌이나 사탕 등 비치하기

얼굴 근육을 움직이면 뇌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사실! 찬물이나 카페인 음료도 좋아요.

3. 과식은 자제하기

운전 중 활동량이 떨어지면 몰려오는 졸음! 장거리 운행 시에는 포만감이 큰 음식을 피해주세요.

4. 스트레칭으로 피로 줄이기

장시간 운전으로 쌓인 몸의 피로를 풀어 주세요. 졸리면 반드시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지능형 교통 체계의 발전과 함께 도로 환경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교통안전정책과 신기술 도입 등 교통안전 문화 발전에 앞장선
이철기 아주대학교 교통·모빌리티대학원장을 만나 ITS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글 정자은 사진 이서연(studio51)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도 ITS는 진화한다

이철기 아주대학교 교통·모빌리티대학원장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열리면서 지능형 교통 체계인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TS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교통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이를 활용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교통 체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능형 교통 체계의 고도화 추진을 위한 단계적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분위기다. 예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 도입과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등이 있다. 이철기 원장은 실시간 교통정보의 체계적인 활용이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신호제어시스템 도입

이철기 원장은 신호제어시스템 도입 추진단장 재임 시절,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한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 통행속도를 약 11.4% 증가시키는 성과를 냈다. 신호제어시스템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도로구간에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흐름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제어하기 위해 신호등의 색상과 시간을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신호제어시스템의 도입 배경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 해소를 위해서였습니다. 차량이 증가하면서 교차로마다 충돌과 정체가 빈번했고, 사람의 수신호만으로는 정확하고 빠른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통안전확보 측면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시간 분리가 필요했고, 많은 차량이 혼재된 상황에서 흐름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도입하게 됐습니다.”

신호제어시스템 외에도 그는 교통안전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에 관해 묻자 ‘안전속도 5030’ 제도를 꼽는다. 이철기 원장은 2016년부터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에 학계 대표로 참여해 선진사례 연구와 검증 등으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제도 도입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안전속도 5030 제도 보완 작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도심 지역에 일률적으로 제한속도를 적용하면서도, 일부 안전성이 확보된 도로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상향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속도 상향이 이뤄진 구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고, 50km/h에서 60km/h로 상향을 위한 기준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능동적인 교통사고 예방과 대응, 자율주행 순찰 서비스 개발

그는 대학교에서 교육자로 강단에 서는 동시에, 교통안전을 위한 ITS 사업에도 활발하게 참여 중이다. “능동적인 교통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순찰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순찰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순찰 기능과 서비스 모듈,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모듈, 센터 시스템 개발 전략과 관련 제도 정립 방안 등의 핵심 요소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교통순찰차의 서비스

플랫폼 개발, 긴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 순찰 차량의 제작과 실증 지원도 추진 중입니다.”

자율주행과 일반 차량이 혼재된 도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통합적이고 지능적인 교통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국내 ITS 기술력, 미래를 향한 도약

국내 ITS 기술의 장점인 통합성과 실시간성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전국 단위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다. 도로와 차량, 관제센터 간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조기에 구현함으로써 체계적인 ITS 환경을 만들어냈다.

“우리나라는 CCTV와 교통검지기, 하이패스 장비 등이 전국에 고르게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TOPIS(서울시

교통정보센터), UTIC(도시교통정보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과 버스 위치, 소요 시간 등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단위의 통합 인프라와 실시간 데이터 활용 능력은 국내 ITS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ITS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쟁점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구축된 ITS 시스템 간의 데이터 통합과 연계 부족 문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교통 개선 클라우드 서비스(TMaaS)’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 개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활용도 ITS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실의 도로·교통 상황을 가상공간에 실시간으로 구현해, 교통의 흐름을 예측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도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자율주행차의 등장과 함께 교통안전에도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교통안전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술적 과제 중 하나는 ‘고위험 상황의 실시간 탐지와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인프라의 구축’이다. “이제 교통사고 예방은 단순한 통계 기반의 분석이나 사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의 위험을 즉시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AI와 IoT 기술의 결합으로, 도로 인프라가 스스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제어 장치를 자동 작동시키는 체계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연계는 물론, 도시 전체의 교통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관리체제로도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을까? 퀴즈로 알아보는 교통안전 상식

출처: 1·2종보통, 대형·특수 학과시험 문제은행

Q1.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행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졸음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갓길에 세워두고 휴식한다.
- ② 초보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차로로 계속 주행한다.
- ③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한다.
- ④ 교통안전 위험 요소 발견 시 비상 점멸등으로 주변에 알린다.

도움말

갓길 휴식, 앞지르기 차로 계속 운전, 방해하는 장치 장착은 올바른 운전 행위로 볼 수 없다.



신호등과 함께하는 독자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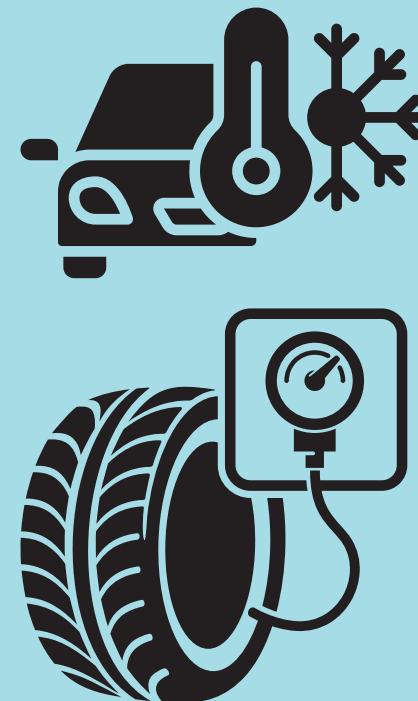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독자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Q2.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바람직한 운전 행위 2가지는?

- ① 피로한 경우 갓길에 정차하여 안정을 취한 후 출발한다.
- ② 평소 즐겨보는 동영상을 보면서 운전한다.
- ③ 주기적인 휴식이나 환기를 통해 졸음운전을 예방한다.
- ④ 출발 전뿐만 아니라 휴식 중에도 목적지까지 경로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며 운전한다.

도움말

사전에 주행계획을 세우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는다. 휴식 중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졸음운전을 이겨내기보다 주기적인 휴식이나 환기를 통해 졸음운전을 예방한다.



Q3. 다음 중 자동차의 친환경 경제운전 방법은?

- ① 타이어 공기압을 낮게 한다.
- ② 에어컨 작동은 저단으로 시작한다.
- ③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 오일필터와 에어클리너는 교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
- ④ 자동차 연료는 절반정도만 채운다.

도움말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상태를 유지하고, 에어컨 작동은 고단에서 시작하여 저단으로 유지, 에어클리너 등 소모품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짐을 빼 트렁크를 비우고 자동차 연료는 절반 정도만 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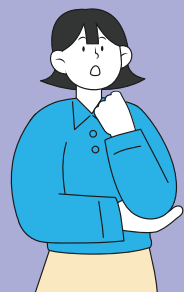
내 손 안의 선생님 교통안전 교육센터 100% 활용하기

누구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현대사회.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일상의 안전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글 편집실



교통안전 교육센터	직무교육	교육자료실	안전운전인증	알림·참여	나의 강의실
교통안전 교육센터 소개	고령운전자	교육영상	안전운전인증 소개	공지사항	학습현황
학습가이드	통학버스	교육홍보물	안전운전인증 현황	자주묻는 질문	교육자료실 학습현황
한국도로교통공단 웹진	긴급자동차	교육교재		관련법령	결제현황
	교통안전교사	메타버스_ON		체험관 예약	개인정보관리
	자율주행	어린이 TAAS			
	교육수강				



도로 위 안전을 위한 모든 정보

교통안전 교육센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교통안전 교육센터'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콘텐츠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모든 국민이 정확한 교통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누구나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자료실' 서비스와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고령운전자 교육, 긴급 자동차 교육 등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직무교육 학습 가이드

- ① 수강 신청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직무교육으로 이동 → 수강신청 → 수강신청 현황 및 확인
- ② 학습 방법
강의실 입장 → 학습하기 → 시험 응시
- ③ 수료증 출력
'나의 강의실-학습현황-학습종료 과정'으로 이동 → 수료증 출력



교육자료실 안내

직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도 교통안전 교육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는 교통법규, 운전자 행동강령, 보행자 안전, 어린이 안전, 개인형 이동장치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영상, 교재, 자료 등으로 제공한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각국 언어별 교육자료도 마련돼 있다. 교육자료는 평소 헛갈리는 교통법규나 이동 수단별 안전 수칙을 숙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교통안전 교육센터
바로가기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교육도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시험운전자)으로, 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여객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운전하려는 사람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최초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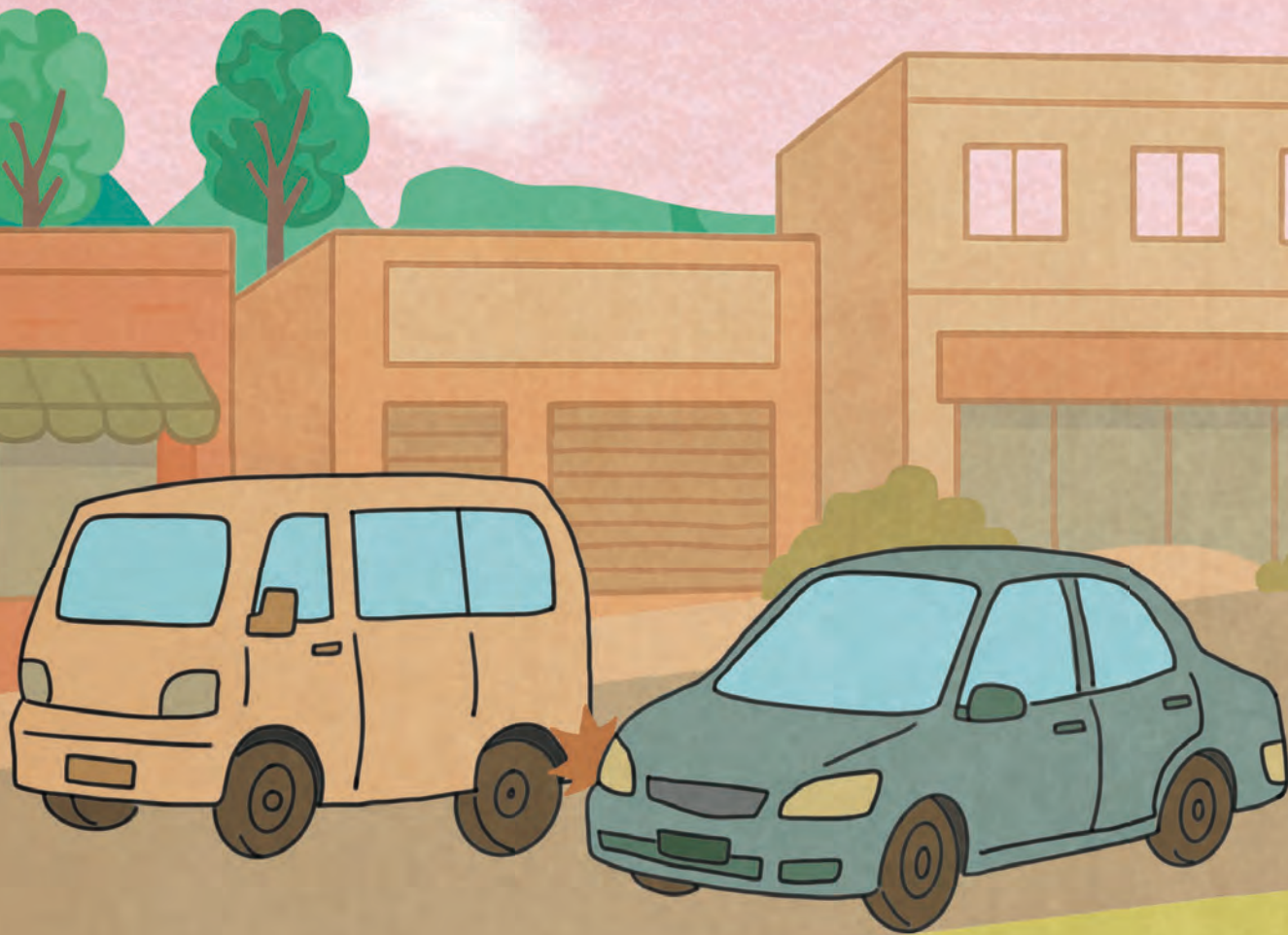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24,000원이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 준수사항, 그 외 알아야 할 지식 등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위험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두 번째 충돌

사고가 나면 빠른 수습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적절하게 수습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순간의 실수로 2차 사고를 일으킨 A 씨의 사례로 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글·그림 차은서 감수 천주현(형사 전문 변호사)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형사법 박사, 대구고등검찰청·대구경북경찰청 수사위원
(제1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제61회 법의 날 표창 수상)

평범한 어느 날의 실수

아주 평범한 하루였다.

영진(가명)은 날이 좋아서였는지 마음이 들떠있었다.

약간의 일탈이라고 생각하며 불법 유턴을 한 순간,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영진은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했다.

쿵!

그 순간, 평범한 일상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이다. 영진은 머리가 멍해졌다.

잠시 후 즐비해 있는 가게 중 한 곳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왔다.

인근 미용실에 있던 피해 자동차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가 뒤를 살폈고, 얼굴에 당혹감이 어렸다.

당황하긴 영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빠르게 사고를 수습해야 했기에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영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좁은 도로를 막고 있는 자신의 자동차였다.

“여기 오래 서 있으면 다른 차들에 피해가 갈 거야. 자리를 비켜야겠어.”

그는 조심스럽게 후진 기어를 넣어 피해 자동차와 간격을 벌렸다. 좁은 도로라서 그 사이에 중앙선을 넘었지만 금방 차를 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던 찰나,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났다.

이번엔 차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어머!”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피해 자동차를 살피던 자동차 주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2차 사고를 낸 것이다.

영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같은 말만 반복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차 사고, 원인을 밝혀라

그날의 사건 이후, 영진은 피해자가 있는 상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법정에 서게 됐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영진에겐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한순간의 실수로 가해자가 되다니... 내가 왜 그랬을까.”

영진은 계속해서 후회의 말을 내뱉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오늘 사건의 주요 쟁점은 2차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검사와 변호사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결국 첫 번째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뒤에 긴 설명이 이어졌지만, 영진의 귀엔 들리지 않았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단순히 차를 빼려다가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이지, 중앙선을 침범하려다가 피해자를 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영진은 상소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중요한 사실

“빨리 가려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생겼네. 잠깐 못 본 것뿐인데! 실수한 번인데!”

숨겨왔던 억울한 감정이 밀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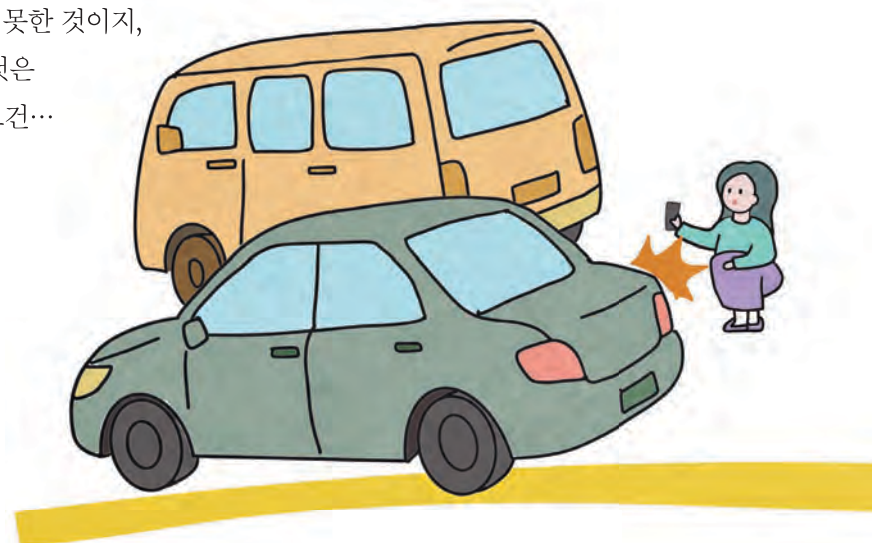
영진은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상소를 철저하게 준비했다.

드디어 결판의 날이 다가왔다. 대법원이라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다.

상고심에서는 실수였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길, 영진은 빌고 또 빌었다.

판사들도 사고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사실 확인에 나섰다. 드디어 판사가 입을 열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후 주차 돼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 후 다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영진은 손에 땀을 쥐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사의 말은, 다시 한번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영진은 한시름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돌아보게 됐다. 법률적으로 무죄(공소기각)가 나올지는 몰라도, 피해자가 놀랐을 것을 생각하니 죄스러운 마음이 올라왔다.

두 번째 충돌의 순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 거였을까? 일단 차에서 내려 피해자한테 죄송하다고 다가갔다면, 사람을 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영진은 자신의 모든 말이 핑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법정을 나선 영진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위 사건은 2차 교통사고 후 처리에 대한 사건 판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다양한 자동차 구매 방법

자동차를 구입하는 여러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

글 김태영(자동차 저널리스트)

국내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들은 흰색이나 검은색, 은색 같은 무채색이 대부분이다.

매년 새롭게 출시하는 수십 종의 신차들이 다양한 외장 색상을 선택 사항으로 제공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무채색 자동차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 자동차 판매 데이터 포털의 분석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중고차 2천만 대의 거래에서 무채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78.5%에 달한다. 이런 현상은 중대형 세단이나 SUV 같은 다목적 자동차가 해치백이나 스포츠카의 판매량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부동산 다음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인식된다. 이런 관점에서 차를 사고 운용하고 되파는 모든 과정은 최대한 효율적이어야 한다. 차를 살 때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팔 때는 최대한 손해를 덜 보는 조건(차종이나 외장 색상)을 원한다는 의미다. 결국 대중적인 수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무난한 색상의 자동차와 SUV처럼 다목적 차종이 주류를 이룬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차를 전략적으로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구독 서비스나 온라인 전용 판매처럼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자동차 운용 프로그램도 생기는 추세다.

#1 신차와 중고차

차를 살 때 신차 혹은 중고차를 선택하는 것은 사용 목적이나 사용자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신차는 오래 탈수록 합리적이고, 중고차는 짧게 사용한다는 목적에 적합하다. 신차의 경우 초반 3~4년 간 차량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다. 하지만 잔존 가치 감가가 초반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5~7년 이상 길게 사용할 때 효과적이다. 반대로 중고차는 인수 후 지속적으로 차량 유지 보수에 비용이 투입되지만, 잔존 가치 하락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2~4년 정도로 짧게 이용하더라도 손해가 덜하다.

#2 현금과 할부 구매

목돈이 있다면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자동차가 고가의 재산이라는 인식에 2~3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1금융권 할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이자 3.5~4.5% 수준. 상황에 따라 최대 60~72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구매자의 경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무리한 금액의 자동차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신차와 중고차 운용의 특징에 맞춰본다면 사용 기간이 긴 신차는 단기 할부로, 사용 기간이 짧은 중고차는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비용상으로 효율적이다.

#3 장기 렌트

자동차를 사용자 명의로 장시간 소유할 목적이 아니라면, 장기 렌트라는 운용 방법도 있다. 장기 렌트는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단위로 빌려 타는 개념이다. 매달 고정된 렌트비 안에 차량 사용료 외에도 보험이나 세금 등이 포함되어서 자동차를 운용하는 과정에 비용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차 잔존 가치 하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사고 시에도 계약된 면책금만 지불하면 된다. 사업자의 경우 렌트비는 일부 경비처리가 될 수 있고, 재산세, 대출 한도, 신용 평점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할부와 비슷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계약 기간 후에 차를 반납 혹은 재계약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리스

자동차 리스는 리스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렌트는 차량 사용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모두 렌트비에 포함된 반면, 리스는 차량 금액만 비용에 포함된다. 약정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이용하며, 약정

기간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잔존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할 수도 있다. 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매달 지불하는 임차 비용이 장기 렌트보다 저렴하다는 점이다. 차량 잔존 가치 설정에 따라 리스 비용을 조정할 수도 있다. 리스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금융 리스는 자동차 할부와 비슷한 개념이고, 운용 리스는 장기 렌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5 구독 서비스

디지털 시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달 단위로 구입하듯이 최근에는 자동차도 구독으로 서비스하는 제조사가 조금씩 늘고 있다. 구독은 리스처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이 구독 서비스의 특징이다. 구독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차량 사용 한 달 이후 원하는 시점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주행거리 제한이나 위약금 등 계약과 관련된 제한이 최소화된 것이 장점이다. 자동차 구독은 2~3개월 수준으로 단기로 자동차 사용이 필요하거나,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짧은 시간 경험해보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한밤중 운전을 하다 보면, 유독 어두운 도로를 만날 때가 있다.
가로등만으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도로가 빛을 낸다면 어떨까.
전기나 가로등 없이도 조용히 어둠을 밀어내는 자체 발광 도로 이야기다.

글 편집실 감수. 박신흥(서울시립대 교수) 자료 출처. BBC, Pro-Teq Surfacing, Tarmac Linemarking,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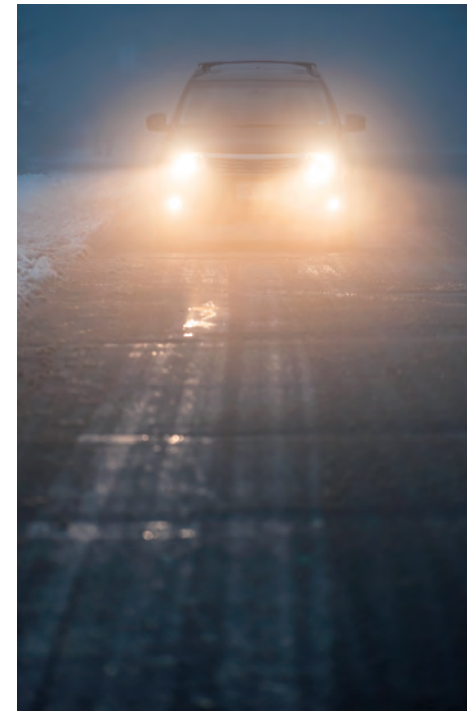
밤길 시야를 책임지는 자체 발광 도로

가로등 없는 밤길을 상상할 수 있을까? 어두운 밤 운전자의 시야를 밝혀주는 빛은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이에 최근에는 가로등뿐만 아니라 발광형 도로 표지나 차선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 시인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서울시와 협력해 발광형 차선을 시범 설치했고, 2024년 서울시는 태양광 LED 표지병을 도로에 설치해 악천후에도 차선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에서는 더 일찍이 도로에 빛을 더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그중에서도 네덜란드와 호주, 영국 등에서는 야광을 활용한 자체 발광 도로를 개발해 실제 도로에 적용 중이다.

어둠에 가려진 차선 밝혀주는 야광 도로 네덜란드와 호주 사례

가장 먼저 알려진 사례는 네덜란드다. 디자인 스튜디오 루스하르데(Studio Roosegaarde)와 건설사 하이만스(Heijmans)는 지난 2014년 네덜란드의 암스테



르담 남동쪽에 있는 오스(Oss)에서 500m가량 '야광 차선'을 선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단백질을 이용해 스스로 빛을 내는 해파리에 착안해 개발한 야광 차선은 페인트에 야광 가루를 일정 비율로 섞은 뒤, 이를 도로에 발라주면 별도의 조명시설이 없어도 일정 시간 동안 빛을 내는 도로로 변신한다. 문제는 야광이 해파리처럼 빛을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네덜란드에 마련되어 있는 야광 도로도 장시간 사용하지는 못하고 대략 1~2시간 정도 빛을 발하다가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빛이 사라지는 나머지 시간의 안전 운행을 위해 간이 조명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또한 사용된 물질이 습기에 약해 빗물에 씻겨나가는 문제로 상용화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비교적 최근인 2022년 호주에서도 비슷한 야광 도로를 개발했다. 네덜란드 사례와 같은 야광 물질이지만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도로 상황에도 잘 견디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호주 기업 타맥 라인마킹(Tarmac Linemarking)이 개발한 야광 도로는 차선이나 도로 표지에 활용된다.



호주에 설치된 야광 도로 낮(위)과 밤 ©Tarmac Linemarking

첫 시범 운영 지역은 호주 빅토리아주 동남부에 위치한 메통 로드(Metung Road) 약 700m 구간이었다. 안타깝게도 빅토리아 주정부는 자체 평가 결과, 야광 차선이 도로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며 추가 적용을 중단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2024년 12월부터 시드니 남쪽의 불리 패스(Bulli Pass)에서 유사한 발광 도로 표식 시험 운영을 시작해, 해당 기술의 효과를 다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부터 자동차까지 빛을 머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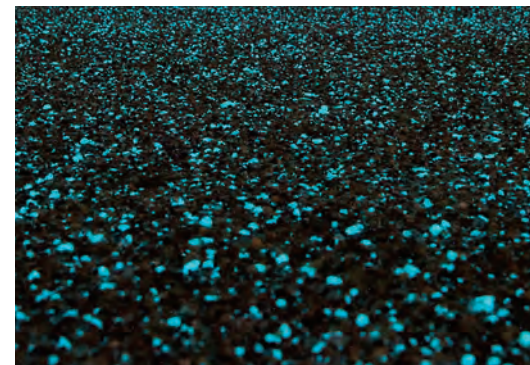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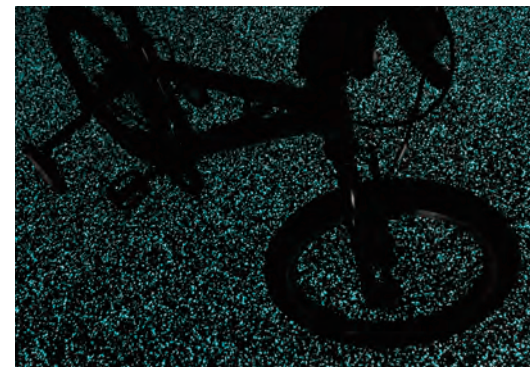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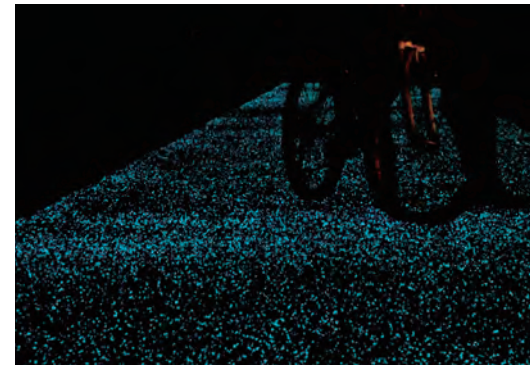
영국의 스타패스

영국에서는 도로포장 자체가 빛을 내는 '스타패스(Star Path)'가 등장했다. 2013년 10월 스타패스가

처음 설치된 곳은 케임브리지시 크라이스트 피시스(Christ's Pieces) 공원 산책로 약 150제곱미터 구간이다.

영국의 신소재 전문 기업 프로테크(Pro-Teq Surfacing)가 개발한 야광 도로는 캄캄한 밤 중에도 도로를 밝게 비추는 별과 같다고 해서 '스타패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낮에 햇빛을 받아 흡수한 후 어두워지면 빛을 내는 원리는 앞서 소개한 야광 도로와

스타패스 자료 사진 ©materialdistrict.com



산책로에 설치된 스타패스 ©Pro-Teq Surfacing

비슷하지만, 스타패스는 그중에서도 자외선을 흡수하여 빛을 발산하는 광 반응성 코팅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차이가 발광 시간을 기존의 10배까지 끌어올린다고 전해진다. 시공 방법도 간단하다. 스타패스를 도로에 분사한 후 약 4시간 정도 건조하면 통행할 수 있는데, 날이 어두워진 이후의 크라이스트 피시스 공원 산책로는 마치 은하수 같은 별빛 길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 개발사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겨울철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눈이 쌓이면 발광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그런 와중에도 스타패스는 보행로뿐 아니라 자동차의 도장재로도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어두운 밤에도 다른 운전자에게 자동차가 잘 보이고 내구성이 뛰어나 2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다는 것이 개발사의 설명이다.

자연광을 활용해 스스로 빛나는 도로 개발. 나라마다 밤을 밝히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안전'과 '친환경 도시'를 향한 기술 혁신으로 미래 도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어두운 밤을 밝혀줄 기술의 발전이 더욱 기다려지는 시점이다.

자동차 도장재로 사용된 스타패스 ©Pro-Teq Surfacing



3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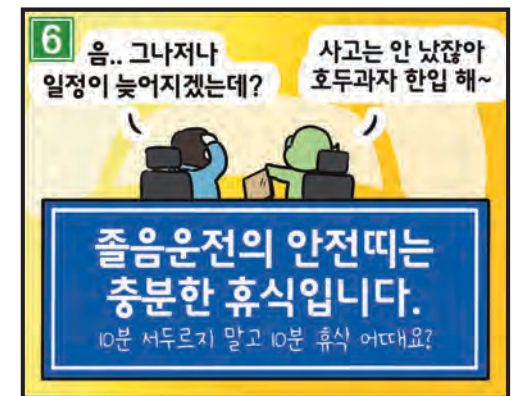


권상민 작가와 함께하는

안전툰

글·그림 권상민

졸음운전



봄의
향긋함을
담은 낭만 도시

춘천

맑은 하늘, 따스한 햇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날씨가 이어진다. 자연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이다. 산과 숲, 문학이 공존하는 도시 춘천. 이곳에서 천천히 머물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쉽고 여행이 필요한 모두에게 춘천은 매력적인 도시다.

글 편집실 사진 남윤중(studio51)



삼악산 등선폭포

마음이 먼저 쉬어가는 길

삼악산

춘천 시내를 조금 벗어난 아침, 삼악산 앞에 섰다. 높이는 655.82m로 크진 않지만 기암괴석으로 이뤄져 경관이 수려하기로 유명한 삼악산은 주봉인 용화봉과 함께 청운봉, 등선봉 등 세 개의 봉우리에서 뻗어 내린 능선이 아름다운 곳이다. 모처럼 따듯한 날씨가 이어져 자연의 운치를 즐길 수 있는 등산로를 선택해 본다.

등산로 입구부터 마주할 수 있는 등선폭포는 삼악산 등산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삼악산에 들어서자마자 새로운 세계로 연결되는 기분이랄까. 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산새 소리와 절벽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의 시원함이 마음까지 전해진다. 웅장한 암벽이 펼쳐진 풍경과는 상반되게, 오르는 길목은 나무데크와 평탄한 길로 잘 닦여

있다. 마치 힘들어 보여도 걷다 보면 다 같은 길이라고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험난한 모습에 지레 겁먹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느낄 수 없었을 감상이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듯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포근하다. 삼악산 정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마음속에 쌓인 잡음이 천천히 잦아들었다.

바위 사이로 피어난 봄꽃을 볼 때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새삼스러웠다. 겨우내 당연했던 앙상한 나뭇가지가 어느덧 별을 받아 이렇게 강렬한 생명력을 내뿜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다. 정상만을 보며 달려가던 발걸음은 절로 속도가 줄어들었다. 속도를 내려놓으니, 풍경은 훨씬 더 다정하게 주위를 감싸안았다.

만약 등산보다 조금은 편한 길이 필요하다면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의암호부터 삼악산 정상까지 3.6km를 잇는 노선이다. 케이



삼악산 케이블카

삼악산

- ① 강원 춘천시 서면 경춘로 1401-25
- ② 삼악산 '등선폭포 주차장' 또는 '호수케이블카 의암호' 주차장
- ③ 등산 소요시간: 코스별 1~2시간 소요



강원도립화목원 야외 풍경



산림박물관

블카에서 내려 산책로를 조금만 걸어가면 투명한 바닥이 짜릿하게 펼쳐지는 스카이워크를 만날 수 있다. 노약자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디자인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삼악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름 모를 초록들과의 대화

강원도립화목원

삼악산에서 내려와 북한강을 따라 조금만 이동하면 강원도립화목원이 나온다. '화목'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자연의 향기가 느껴지는 이곳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생태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화목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물줄기가 샘솟는 연못과 붉고 노란색의 튤립이 봄을 실감하게 한다. 사계 식물원, 수생식물원, 화목정, 숲속 쉼터, 잔디원 등등 정말 다양한 주제로 넓은 공간이 채워져 있다. 맨발로 걷는 길이나 메타세쿼이아 숲은 유유자적 산책길로 안성맞춤이고, 다양한 식물원은 다채로운 얼굴의 식물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이 매력적이다. 발길 닿는 대로 다 돌아보는 것이 역시나 가장 좋겠지만 하나만 선택한다면 오감체험

정원을 꼽아야겠다. 오감체험정원은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식물 속에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오감식물원, 관엽식물원, 난대식물원, 생태관찰원, 다육식물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원을 들어준다는 버즘나무까지. 유리 온실에 가득한 식물들 사이를 걷는 동안 모두 다른 생명들의 이름과 향기를 마주할 수 있다. 식물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색과, 온도와 생김새를 갖는다는 사실이 걸음걸음마다 전해져 흥미롭다.

강원도립화목원은 자연을 보다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목공예 체험도 인기지만, 숲 해설가의 안내에 따라 40여 분간 무료로 숲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숲 해설 프로그램도 추천할 만하다.

강원도립화목원

- ① 강원 춘천시 화목원길 24
- ② 9:00~18:00(월요일 휴관)
- ③ 성인 1,000원, 중·고등학생 700원, 초등학생 500원
- ④ 공영주차장(무료)



김유정 동상

오래된 말들의 따뜻한 체온

김유정 문학촌

춘천 여행의 마지막으로 김유정 문학촌을 찾았다. 동백꽃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김유정의 생가를 복원하고 전시관을 지어 2002년 8월 6일에 개관한 곳이다. 그의 이름이 붙은 역에서 조금만 걸으면, 조용한 마을 끝에 다다른다. 그렇게 찾은 김유정 문학촌은 그의 짧은 생애만큼이나 소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문장들은 오래도록 숨 쉬고 있었다.

낡은 타자기, 율필 원고, 흑백 사진 속의 작가. 소설가 김유정의 손때가 묻어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보다 시선이 멈춘 곳은 그가 <봄봄>을 쓰던 방이었다. 그 공간에 소설가 김유정은 없지만 그의 기록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김유정의 글은 오래전 농촌의 이야기를 담았다. 세상은 변했지만 지금도 그의 작품은 우리네 마음에



김유정 생가



김유정 이야기집

자연스럽게 닿아 전해진다. 서툴지만 진심을 꼭꼭 눌러 담은 말들, 사람 냄새나는 묘사. 세상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유정 문학촌은 그런 의미에서 문학작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춘천 여행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라던 소설 <봄봄> 속 표현이 꼭 이해가 되는 날이었다. 때로는 어떤 사진보다도 문장 한 줄이 강력한 기억을 남기기도 한다.



김유정 전시관

김유정 문학촌

- 강원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30-14
- 9:00~18:00(월요일 휴관)
- 일반 2,000원
- 공영주차장(무료)

전국모범윤전자연합회 안중극 춘천지회장 추천 기사식당



별미기사식당

춘천 시민에게 따뜻한 집밥을 선사하는 별미기사식당. 뽕글장과 김치찌개로 유명한 백반 전문점이다. 달걀 프라이만 추가하면 밀반찬으로 비빔밥까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원 춘천시 공지로317번길 16 ☎ 033-256-6485



형성기사식당

바쁜 기사님들도 줄 서게 만드는 마성의 식당. 제육볶음과 청국장이 함께 나오는 제육 백반이 이곳의 인기 메뉴다. 구수하고 깊은 청국장과 군더더기 없는 제육의 조화가 예사롭지 않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68 ☎ 033-261-5199

1 남양주 물의정원

북한강을 끼고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물의정원에도 꽃양귀비가 봄을 머금고 있다. 북한강변을 따라 약 1km 구간에 대규모 꽃양귀비 단지를 형성해 붉은 물결을 자랑한다.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물의정원에서 양귀비의 매혹적인 자태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398

3 괴산 동진천

꽃양귀비가 만개한 가운데, 괴산에서는 빨간색을 주제로 한 축제가 준비 중이다. 오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에서는 괴산의 특산물 고추와 함께 양귀비, 백일홍, 튼린 등 빨간 봄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60



글 편집실
사진 한국관광공사, 나주시청, 밀양시청, 울산시청, 과산군청, 하동군청

꽃양귀비 군락지

봄이면 붉은색 주단을 펼치는 양귀비가 전국을 물들인다. 개양귀비라고도 불리며 나들이객을 유혹하듯 바람에 흔들리는 꽃양귀비 군락지를 찾아가 보자.

지금, 여기



2 원주 용수골

강원 원주에도 양귀비의 유혹이 짙게 시작됐다. 5월이면 용수골 내 4만 3천㎡ 규모의 드넓은 정원에서 붉은 꽃양귀비와 함께 금영화, 수레국화 등 다양한 꽃이 세상에 피어난다. 2005년 귀농인들이 꽃양귀비를 심은 것을 시작으로 방문객이 늘어나며 현재는 마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했다.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632-1

7

6

5

4



5 악양생태공원

‘함안뚝방길’로 불리는 방죽길 즉, 두길은 낙동강 지류인 남강을 끼고 있어 수려한 경치로 유명한 곳. 이곳에도 꽃양귀비가 제철을 맞았다. 악양독방 6.5km 구간에 꽃양귀비를 비롯한 수레국화와 안개꽃 등 다양한 꽃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경남 함안군 대신면 서촌리 1418



4 하동 복천 직전마을

하동 복천면 직전마을은 유명한 꽃양귀비 군락지다. 드넓은 들판에 핀 꽃양귀비와 함께 다채로운 봄꽃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기로 유명한 곳. 인근에서는 폐철로를 활용해 양귀비 꽃길을 따라 이명 터널의 환상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하동 레일바이크도 운행한다.

경남 하동군 복천면 직전리 507-1



7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은 생태하천 태화강을 끼고 있는 친환경 생태 정원이다. 5월부터 6월까지 이곳에 붉은 꽃양귀비가 장관을 연출한다. 총 6천만 송이의 꽃 중 2천만 송이가 꽃양귀비일 정도로 대규모의 꽃양귀비를 만날 수 있는 곳.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 축제 기간에 방문하면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울산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164-3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164-3

세계 각국의 독특한 교통수단 세상에 이런 교통수단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교통수단이 있다. 전통 교통수단으로 각국의 매력을 알아보자.

글 편집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두피디아

릭샤

인도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전통 교통수단 '릭샤'는 우리나라의 인력거와 비슷한 개념이다. 대표적으로는 자전거를 개조해 페달을 밟아 운행하는 '사이클 리ك샤'가 널리 사용되며, 최근에는 오토바이를 개조한 '오토 리ك샤'도 대중화되고 있다. 뉴델리 지역을 포함해 많은 도시에서는 사람이 직접 끄는 리ك샤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대신 오토 리ك샤가 택시처럼 미터기를 장착해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골목길이 많은 인도 특성상 자동차보다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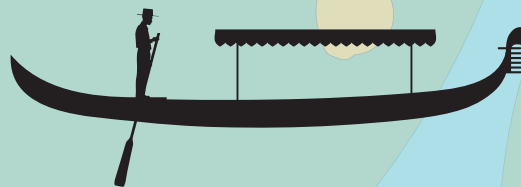
인도



이탈리아

곤돌라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는 단연 '곤돌라'다. 좁고 복잡한 운하를 따라 움직이는 이 전통 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베네치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곤돌라는 길이 약 11m, 폭 1.4m의 나무 보트로, 숙련된 조종사 '곤돌리에레'가 긴 노를 사용해 직접 조종한다. 최대 6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대부분 관광객을 위한 운하 투어용으로 운영된다.



톡톡

태국 방콕의 거리에서는 삼륜 오토바이 '톡톡'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름은 엔진 소리에서 유래했으며, 실제로 타보면 그 이름이 왜 붙었는지 단번에 이해된다. 톡톡은 오토바이 앞부분에 승객석을 연결한 구조로 좁은 골목길을 유연하게 통과할 수 있어, 방콕의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다양한 색상과 화려한 장식으로 꾸민 톡톡은 교통수단을 넘어 하나의 볼거리이다.



태국



캐나다

퓌니쿨레르

캐나다 몬트리올과 캘로나 같은 도시에서는 '퓌니쿨레르(Funiculaire)'라는 독특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는 철도식 승강기로, 언덕이나 고도가 높은 지형에서 활용된다. 퓌니쿨레르는 도시 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거나, 고지대에 위치한 거주지와 시내를 오가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특히 언덕 위에서 도시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심 교통 시스템의 일부로도 통합해 운영 중이다.



지프니

필리핀에서는 '지프니(Jeepney)'라 불리는 독특한 교통수단이 대중적으로 사용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남기고 간 군용 지프를 개조한 것에서 유래했으며, 현재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자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지프니는 차체가 길고 양옆에 마주 보는 좌석이 설치돼 다수의 승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또 화려한 색상과 장식이 특징으로, 보는 재미를 더한다. 도심에서부터 외곽 지역까지 다양한 노선을 운행하며 필리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

시클로

베트남에서는 '시클로'라는 이름의 전통 인력거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자전거 앞부분에 승객석을 장착한 형태로, 느린 속도로 도시를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하노이나 호치민 등 구시가지에서는 시클로가 주요 관광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좁은 골목도 쉽게 지나갈 수 있어, 도시 탐방에 적합하다.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며 베트남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답답한 신호? 똑똑한 신호! 지능형 교통 체계

이제는 교통신호도 지능형이다. 도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 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글 편집실 출처: ITS 국가교통정보센터

← KOROAD

Q ≡

지능형 교통 체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생활은 첨단 기술이 녹아들며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교통 체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능형 교통 체계란?

지능형 교통 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단순한 신호 조절을 넘어서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전자, 제어, 통신 기술을 접목한 첨단 교통관리 체계.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신호를 조정하거나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ITS국제협력센터

토막 상식

감응 신호는 ITS의 하위 시스템 중 하나로 교차로나 특정 지점에 설치된 센서를 중심으로 작동하며, 상황에 맞춰 신호를 자동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다.

← 감응신호

← 감응신호

← 감응신호



← KOROAD

Q ≡

내가 아는 ITS는? 퀴즈로 풀어 봅시다

우리는 ITS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래 빈칸을 채워보며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 교통 정보 수집, 분석, , 정보 제공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 감응 신호는 를 통해 차량을 인식하고 신호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다.
- 버스정보시스템(BIS)은 정류장 전광판이나 을 통해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ITS 사례이다.
- 하이패스는 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자동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 스마트 교차로는 실시간 교통량을 감지하여 가장 에 신호를 우선 배분한다.
- ITS는 도로 위 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교통을 조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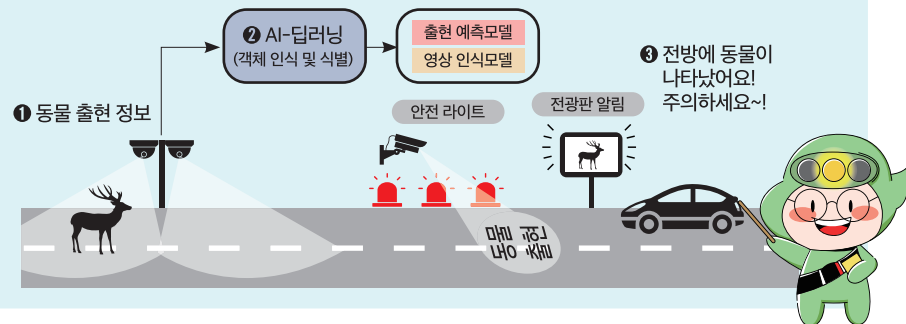
- ⑦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한다.
- ⑧ ITS는 를 통해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 ⑨ 최근에는 차길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도 개발됐다.
- ⑩ 감응 신호는 교통량이 시간대에 특히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정답

정답 ⑩ 감응 ⑨ 최근 ⑧ ITS ⑦ 긴급차량 우선신호

토막 상식

나들이가 많아지는 5~6월은 동물 차길 사고(로드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또 하나 개발됐다. 지난 4월 8일 환경부는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동물 차길 사고 예방 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동물 차길 사고 예방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CCTV와 라이다 센서를 설치해 동물 출현을 감지하고, 150m 전방에 설치한 LED 전광판에 "전방 150m 이내 야생 동물 출현"문구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생활 속 ITS 찾아보기 지능형 교통 체계, 아직 어렵기만 하신가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지능형 교통 체계 사례로 알아보세요.



버스정보시스템

정류장 전광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 시민의 대기 시간과 불편을 줄여준다.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차량이 정차 없이 통행료를 자동 결제함으로써, 정체 해소와 시간 절약을 이끈다.



스마트 교차로

실시간 교통량 감지를 통해 가장 필요한 방향에 신호를 배분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히 조절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호를 제어해 출동 경로를 신속히 확보하는 ITS 시스템

< 이 부분을 촬영해 주세요 >

교통안전 실천 다짐

이름: _____ 획득 점수: _____ 점

느낀 점: _____

한 줄 다짐: _____



**신호등과 함께하는
독자 이벤트**

교통안전 실천 학습장을 스스로 풀어보고, 45쪽 교통안전 실천 다짐을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름,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hongbo@koroad.or.kr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의 시선 차이 자동차 V S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 운전자의 입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를 보고 놀랄 때가 많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두 운전자의 입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들어보자.

글 편집실

“
도로는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조금씩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자동차 운전자 A씨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
뭐라고 하지 않죠!

자전거 운전도 엄연한 운전입니다. 자동차처럼
교통법규에 맞게 운전하면 뭐라고 하지 않겠죠.
하지만 도로 가장자리로 다녀야 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에 난입해 자동차와
함께 좌회전을 하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등장에 당황스럽다고요!

갑자기 튀어나온다고요?
자전거도 도로로 다닐 수 있다고요!

일부 자전거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방법
때문에 모든 자전거 운전자가 무법자인 것처럼
대하니 억울해요. 도로는 원래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운전자 B씨



횡단보도 보행 안전 수칙

출처: 어르신 안전 지키는 도로 횡단 5원칙 포스터



무단횡단은 절대 금물!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찾아 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서서
좌우를 살피 주세요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도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땐 천천히!
신호가 깜빡일 때는 다음 신호에 건너 주세요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다

교통약자의 길을 넓히는 첨단 기술

기술의 발전은 이동의 자유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첨단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길을 넓혀주고 있는 첨단 기술을 알아본다.

글 편집실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 디지털재단, 서울시 보도자료, 울산시 교육청

사람을 위한 길을 찾다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AI 기술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첨단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며 눈길을 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대전광역시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배차 효율화 분석’을 완료하고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 빠른 시간 안에 배차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이동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으로 배정을 받았다. 하지만 차량 신청부터 탑승까지 배차 시간과 직결되는 이동차량의 대기 장소는 신청자 위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들의 시간대별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이용자 수가 많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특정하고, 이용자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량 대기 지역을 도출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이던 7개소의 차고지 위치에 대한 적절성도 인공지능을 통해 검증하고 새로운 차고지 위치를 제안했다. 인공지능이 제안한 새로운 차고지에서 배차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지까지의 이동 거리는 기존보다 약 41%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





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023년, 도보를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도보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건물 입구를 찾지 못하거나, 계단 등 장애물로 인해 건물 출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 27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과 함께 개인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출입구, 엘리베이터, 보행 장애물 등을 직접 촬영해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건물 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도보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또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동참했다. 지난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의 음성 안내 기능개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와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간의 시간을 연동해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잔여시간을 듣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음향 신호기를 개선한 것이다. 공단은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음성안내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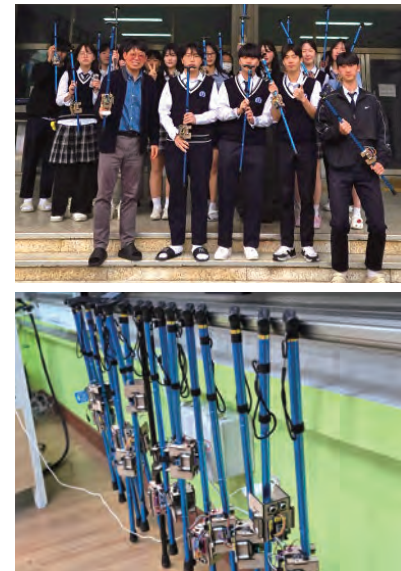
공감으로 시작된 기술 개발

관심과 기술로 완성한

교통약자 서비스

도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약자의 불편함에 공감한 기술도 세상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24년 경찰청은 초고령사회 변화에 맞춰 농어촌 등 교통 불편지역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호출 버스다. 경찰청은 지자체,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확대해 교통 불편 지역에 이동권 지원을 높였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경찰청은 대체교통수단을 활성화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지자체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자유

확대를 위한 시범운영 추진 등 환경을 조성하고, 현대자동차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담 및 시범운영 차량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지팡이’를 개발해 화제다. 지난 4월, 울산 효정고등학교 창업동아리 학생 21명이 초음파 감지기를 사용해 주변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형 지팡이를 개발했다. 지팡이는 초음파를 통해 장애물을 인식하고 충돌 위험이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경고음을 내 위험을 알린다. 또 진동 감지기도 설치해 소음이 많거나 조용한 환경에서도 손끝 감각만으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물 감지 후 반응 속도와 진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해 시각장애인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발명한 지능형 지팡이는 특수학교 시각장애인에게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모두가 자율주행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역시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동대문구·동작구·서대문구 등 3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기술의 수혜는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대중교통 서비스다. 이 자율주행버스는 교통 단절 지역이나 노약자 이용이 많은 지역 등, 각 자치구 내 소외된 구역을 중심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시범운영지구 지정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인 여객 운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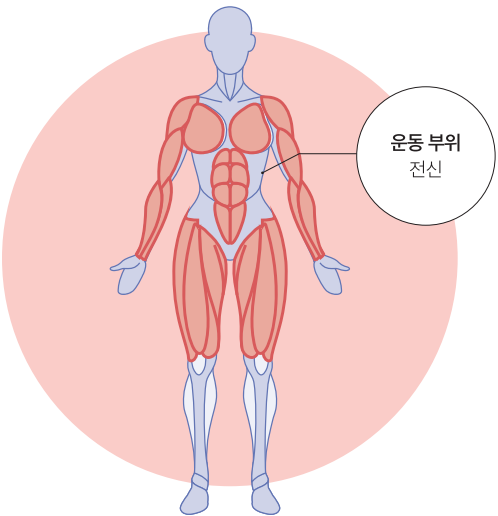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지나치게 앞서가는 기술이 오히려 사람을 소외시키는 건 아닐지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교통약자와 함께 나아가는 자율주행 기술의 방향은 분명 ‘사람’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



체중감량에 도움 주는 전신 운동 세 가지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은 필수적이다. 특히 전신 근력운동과 함께 유산소를 곁들인 동작은 빠른 감량에 도움을 준다. 집에서 따라 하기 쉬운 매트운동으로 여름을 준비해 보자.

강사: 한진영 사진: 홍덕선(Studio51) 장소제공: 지니필라테스



첫 번째 동작 스쿼트

10회 3번 반복

강사의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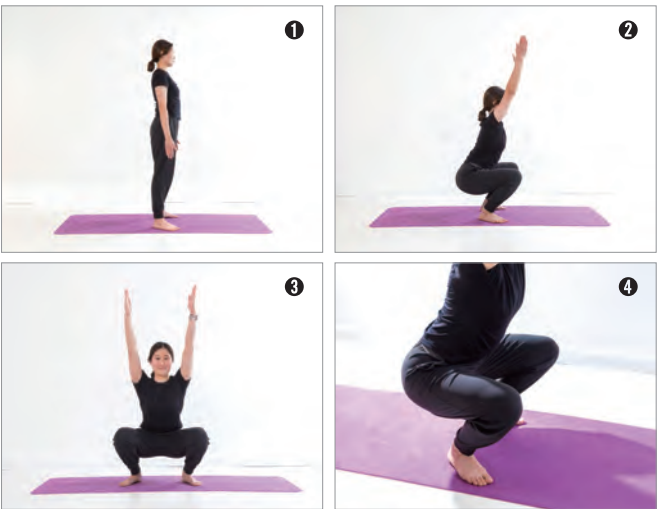
- 무릎은 발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해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바닥 바깥쪽에 힘을 주면서 진행해 주세요.
- 내려갈 때 숨을 들이쉬고, 올라올 때 내쉬면서 진행하면 호흡이 안정될 수 있어요.
- 가능하면 무릎보다 엉덩이가 더 아래로 내려간뒤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 보세요.

1 준비 자세

- 정면을 바라보고 바른 자세로 선다.
- 양발은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45° 정도 바깥을 향하게 둔다.

2 동작 따라 하기

- 양팔을 얼굴 옆으로 뻗어 올리면서 무릎과 고관절을 접어 엉덩이를 아래로 낮춰 천천히 앉는다.
- 등허리는 말리지 않게 펴는 힘을 유지하고 가슴과 시선은 정면을 향한다.
- 허벅지와 바닥이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간 뒤, 엉덩이 힘으로 다시 일어난다.



두 번째 동작 압워킹

10회 3번 반복

강사의 도움말

- 동작 중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거나 반대로 활처럼 꺾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부 긴장을 유지해 주세요.
- 마지막 플랭크 자세에서 유지 시간을 길게 가져가도 좋아요.
- 가슴이 바닥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손바닥과 발가락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써주세요.

세 번째 동작 마운틴 클라이머

좌우 왕복 8회씩 3번 반복

강사의 도움말

- 허리가 꺾이거나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 무릎을 당길 때는 복부를 조이듯이 힘을 주면 자극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 첫 번째 동작부터 세 번째 동작까지 한 번에 이어서 진행하면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 가능하면 빠르게 교차해 달리듯이 진행해 운동효과를 높여 주세요.

1 준비 자세

-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양 손을 높이 들고 똑바로 선다.

2 동작 따라 하기

- 무릎을 살짝 굽힌 채로 상체를 앞으로 숙여 두 손바닥을 어깨너비로 벌려 바닥에 댄다.
- 손을 한 뼘씩 앞으로 내디디며, 앞으로 전진한다.
-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게 일직선이 되면 자세를 1~2초 유지한 뒤, 손으로 바닥을 밀며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온다.



1 준비 자세

- 두 손을 어깨 아래에 두고, 팔을 곧게 편 상태로 플랭크 자세를 만든다.

2 동작 따라 하기

-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긴다.
- 다시 오른쪽발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이번엔 왼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다. 좌우 무릎을 번갈아 교차하며 반복한다.





전기자전거 타기 전 확인 사항!

직장인의 운전 경험담을 통한 전기자전거 안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륜차 번호판 달라진 거, 아셨나요?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기간 확대 등 변경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도로에서 봄나물 채취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도로변 채취 행위. 다 같이 조심해야겠죠?



봄철 자전거 운전 주의사항

자전거 타고 나들이 간다고요? 자전거 안전 수칙부터 확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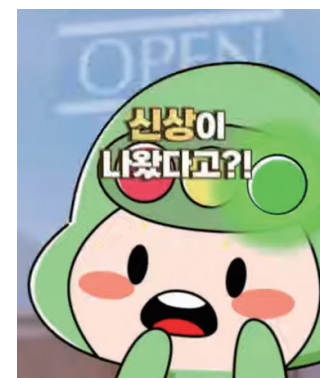
교통안전 표지판 완전 정복!

헛갈리는 교통안전 표지판이 있다면 주목, 나들이 전 교통안전 표지판부터 알고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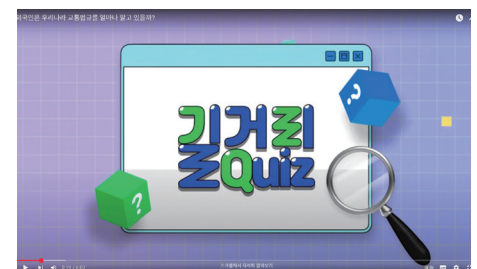
캠핑 카라반, 어떤 면허가 필요할까?

견인차면허? 구난차면허? 바로 알아봅시다.



신상 면허증을 소개합니다!

면허증이 바뀐 거 아직도 모르셨나요? 신상 면허증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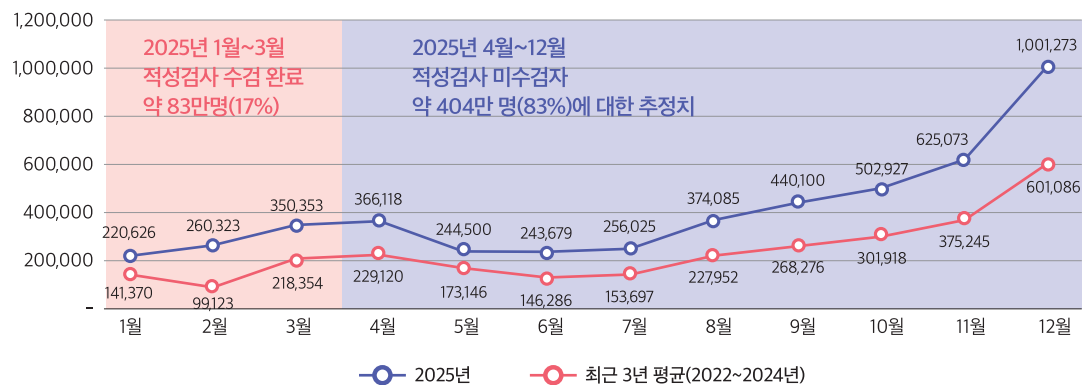
외국인은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물어봤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1

‘적성검사 대기인원 지금은 50명, 연말엔 2,000명’

- 대기 시간이 짧은 상반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대기 없는 온라인 적성검사 권장
-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운전자 5명 중 4명 아직도 적성검사 안 받아, 서둘러야



최근 3년 평균 대비, 2025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 현황

지난해 12월(1,996명) 대비 올해 4월 초(46명) 적성검사·갱신 대기인원을 비교한 결과 43배나 줄었다. 상반기 수검을 완료해야 연말 긴 시간 대기하는 번거움을 덜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 1분기가 지난 시점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490만 명 중 17%(약 83만 명)가 완료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말 운전면허시험장에는 막바지 적성검사를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고객이 몰려, 매시간 평균 2천 명이 대기했으며 4시간 이상 소요됐다. 최근 3년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자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상반기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자가 최대 6배 이상(12월 대비 2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검사·갱신은 상반기에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30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온라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을 이용하면 10분 내외로 완료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1분기가 지난 시점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약 400만 명이 남았다”라며, “30분 내로 가능한 상반기 수검과 대기시간이 없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밝혔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 ‘2024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등급 ‘우수’ 달성

-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과 토요특별시험 확대 등 생활과 밀접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기획재정부 시행, 182개 기관 대상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 ‘우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며, 2024년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8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단은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과 토요특별시험 확대 △교육예약 서비스 민간 개방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환경 개선 △국민 공감형 교통안전 정보 제공 등 도로안전에 밀접한 서비스 제공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도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당신의 원주를 소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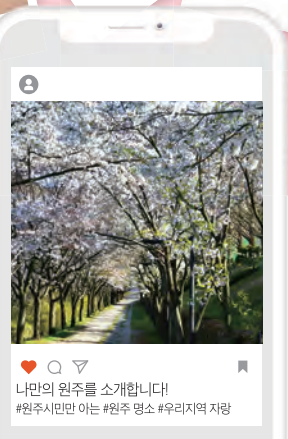
「신호등」구독 신청 연간 이벤트

「신호등」구독 신청 후 지역민만 알 수 있는 원주시의 명소, 자랑거리 등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 ① 「신호등」구독 신청(66쪽 참고)
- ② 원주시의 명소, 자랑거리 사진 촬영
- ③ 이름, 휴대전화번호, 신규 구독 신청 여부와 촬영한 사진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5+6월호 이벤트 참여 기간 6월 13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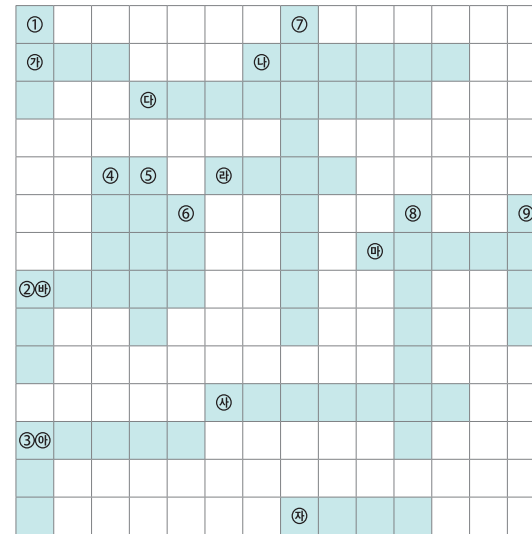


hongbo@koroad.kr

* 지남호 당첨자는 66쪽에서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용어 십자말 풀이

교통, 자동차, 교통사고 등에 관심이 있다면 적합한 자격증이 있다.
바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다.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수 기간이니 늦지 말고 접수해 보길
추천한다. 아래는 자동차 용어, 교통사고 관련 단어로 구성된
날말 맞추기다. 알고 있는 지식을 점검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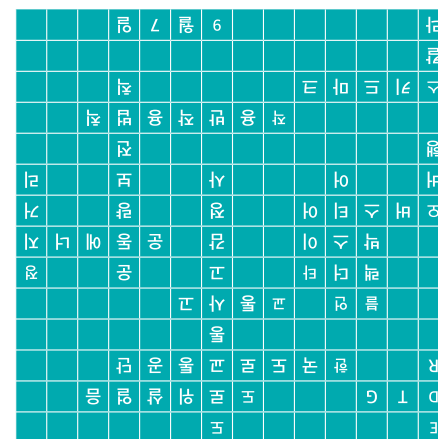
세로

- ① 자동차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의 약자
- ② 앞바퀴와 뒷바퀴 차축의 중심선으로부터 차체 끝까지의 거리
- ③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는 물리량을 뜻하는 단어. 속력, 질량 등이 있다.
- ④ 블랙박스 카메라와 녹화장치가 내장된 충격감지장치로 자동차에 장착하여 동영상과 음성을 녹화하는 장치
- ⑤ 차량이 의도한 방향보다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현상, 차량이 코너를 돌 때 스티어링휠을 돌린 각도보다 차량의 회전반경이 커지는 현상
- ⑥ 도로와 자동차가 맞닿는 부품으로 바퀴를 둘러싸고 있는 둥근 고무형태
- ⑦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 분석, 감정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 21회를 맞이한 사고조사 분야의 공인자격
- ⑧ 물체가 충돌하거나 상호작용할 때, 모든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법칙
- ⑨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으로 운전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자동차가 멈추기까지의 거리

가로

- ⑦ 차량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장치로 Digital Tachograph의 약자
- ④ 겨울철에 도로 표면에 얇게 얼어붙은 얼음막으로, 블랙아이스라고도 불리는 단어
- ⑥ 195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안전, 방송, 면허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 전문기관
- ⑥ 도로에서 차량의 운행 중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 ⑥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 ⑥ 차량이 코너를 돌 때 스티어링휠을 돌린 각도보다 회전반경이 작아지는 현상
- ④ 뉴턴의 운동법칙 중 제3법칙으로, A물체가 B물체에게 힘을 가하면 B물체 역시 A물체에게 똑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는 법칙
- ⑥ 최대 감속도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정지할 경우 도로 표면의 마찰력에 의하여 타이어가 녹아 도로 표면에 흡착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남긴 바퀴 자국이다.
- ④ 제21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접수 기간은 7월28일 ~ 8월7일이며 자격시험일 8월8일이다.

정답



제21회 2025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안내

접수기간 7월 28일(월)~8월 7일(목), 18시까지

접수방법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온라인 접수

시험일자 9월 7일(일)

자격검정 공고
바로가기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2013년부터 12년 연속 감소 추세

(단위: 명)

	전체	보행자	고령운전자	화물차	이륜차	고속도로	음주운전
2024년	2,521	920	761	594	361	187	138
2023년	2,551	886	745	595	392	186	159
대비(%)	-30(-1.2)	+34(+3.8)	+16(+2.1)	-1(-0.2)	-31(-7.9)	+1(+0.5)	-21(-13.2)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지난 4월 9일 경찰청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지난해(2,551명)보다 1.2% 감소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 해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해 81.2%가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건수 역시 196,349건으로 지난해(198,296건)보다 1%(1,947명) 감소 했고, 교통사고 부상자 역시 지난해(283,799명)보다 1.9%(5,317명) 감소했다.

주요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를 구분해 살펴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38명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제도개선 등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159명)보다 13.2%(21명)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2020년(287명)과 비교해 4년 만에 절반 아래로 감소(-51.9%)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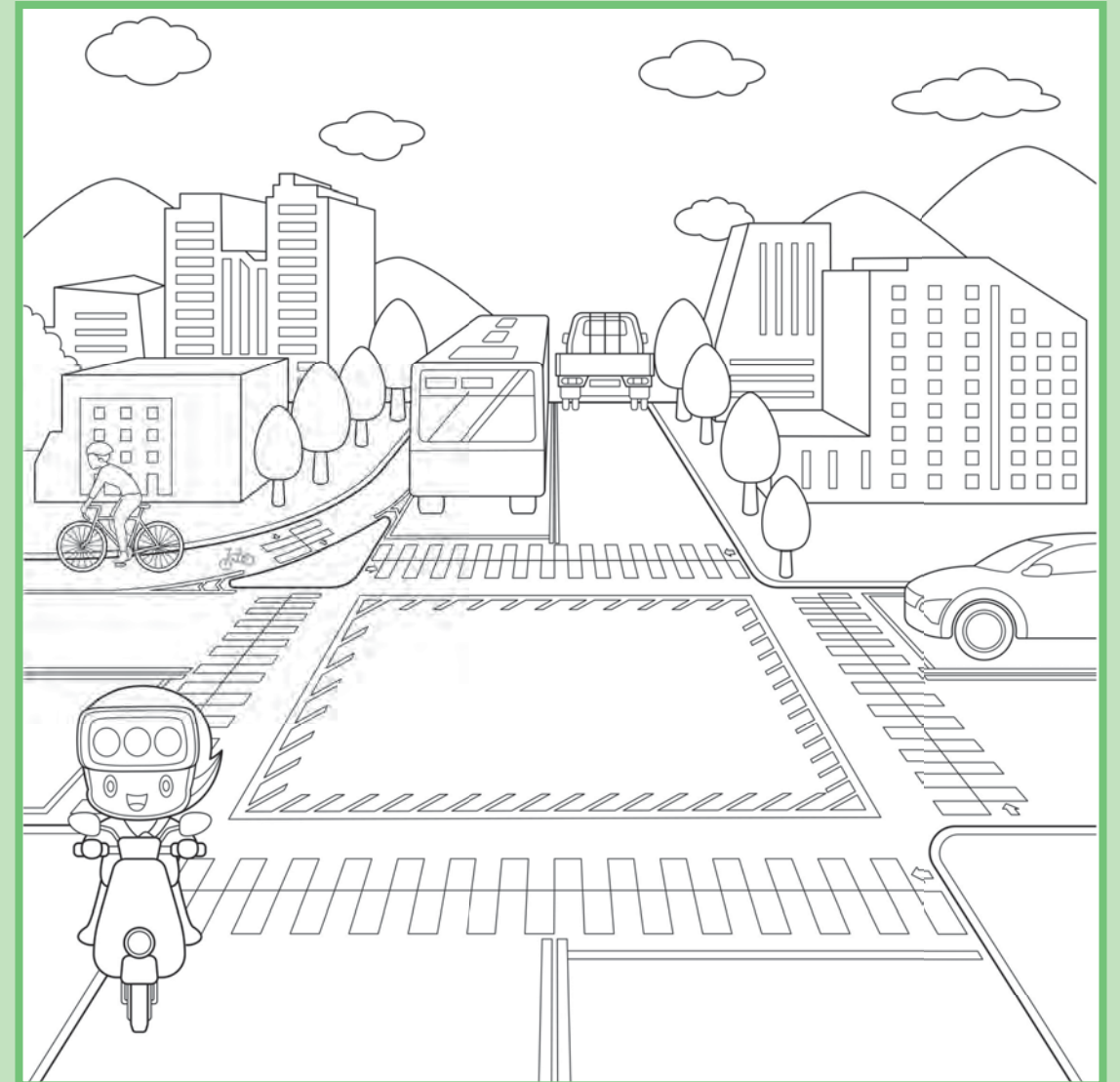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34명) 증가했는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67.0%(616명)로 지난해 62.1%(550명)에 비해 증가했고 이는 인구 고령화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풀이된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761명으로 지난해(745명)보다 2.1%(16명) 증가했다. 다만,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증가로 고령 면허소지자 10만 명당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4년 기준 14.7명으로 최근 5년 동안 감소 추세에 있다.

한편,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186명)보다 0.5%(1명) 증가에 반해,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도 361명으로 지난해(392명)보다 7.9%(31명) 감소했으며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94명으로 지난해(595명)보다 0.2% 감소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특별·광역시지역에서 울산(13명, 34.2%↑), 서울(33명, 18.6%↑), 대구(10명, 13.7%↑) 순으로, 도(道) 단위 지역에서는 충남(31명, 15.3%↑), 제주(3명, 6.7%↑), 전북(3명, 1.8%↑)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 감소율은 특별·광역시지역에서는 세종(5명, 41.7%↓), 도(道) 단위 지역에서는 강원(19명, 13.6%↓)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호동이’와 함께 도로교통 안전 생활을 약속해요!



지난 호 당첨자



강*선(6866)



박*주(4005)



유*준(5945)



이*현(1083)



황*윤(2011)

한국도로교통공단 마스코트 호동이는 교통안전 메신저입니다.
호동이를 예쁘게 색칠하면서 안전한 도로교통 생활을 약속해 봅시다.

그림을 정성껏 색칠한 후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2025년 6월 13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총 5분을 선정해 호동이 인형을 드립니다.

hongbo@koroad.or.kr

※ 보내주시는 메일은 단체 계정으로 수신 확인이 '읽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KOROAD

독자 의견

「신호등」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듭니다. 매호 「신호등」을 읽고 느낀 점을 독자 엽서로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약속해요 안전운전

우리 사회에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 일상 중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가 상당수 있는데 이들이 불편을 덜 느끼고 불안하지 않도록 교통약자 안전 수칙과 보호의무를 잘 숙지해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황*연(2602)



슬기로운 운전 생활

지갑 속에 쏙 들어가 있던 운전면허증을 꺼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을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온라인으로도 적성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내년에 운전면허 갱신 시 참고하겠습니다.

박*정(6321)



내 차 사용법

자동차의 디자인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공장에서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후 약 120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자동차 디자인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미래의 자동차 디자인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궁금하네요.

김*경(9135)



미래 도로 설명서

자율주행 지도 공개 임박이라는 주제가 흥미로웠습니다. 올해부터 자율주행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교통사고 줄이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김*기(2893)



KOROAD, CO-ROAD

장애인 상징 표시로 대표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설치돼 있으며, 또한 국가 유공자나 고령자,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주차구역도 신설돼 배려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도(2019)

「신호등」 모의고사

다음 문제의 정답을 맞춰 주세요.

정답은 2025년 신호등 5+6월호에 숨어 있습니다.

Q1. 이번 호 「신호등」 특집 주제는 무엇일까요?

- ① 도로 다시 보기: 직진하는 마음으로
- ② 도로 다시 보기: 양보하는 마음으로
- ③ 도로 다시 보기: 배려하는 마음으로
- ④ 도로 다시 보기: 화합하는 마음으로

Q2. 이번 호 ‘슬기로운 운전 생활’ 코너에서 소개한 내용으로 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 ①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② 교통안전 교육 센터 활용법
- ③ 난폭운전 대처방법
- ④ 지능형 교통 체계

Q3. 이번호 ‘호동이 안전툰’ 코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 ① 스텔스 차량
- ② 음주 운전
- ③ 보복 운전
- ④ 졸음운전

참여 방법 2025년 6월 14일까지 ‘정답/이름/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아래 메일로 보내 주세요.

hongbo@koroad.or.kr

과월호 당첨자 안내

3+4월호 신호등 모의고사

정답 Q1. ③ Q2. ① Q3.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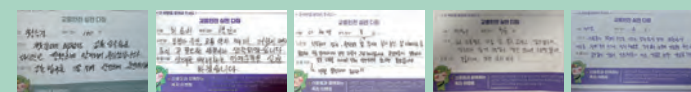
김*대(3882), 김*표(9633), 서*인(6172) 정*진(6091), 장*익(3944)

3+4월호 교통안전 퀴즈

정답 Q1. ④ Q2. ③ Q3. ①, ④

박*무(0418), 서*리(7212), 고*주(6090), 윤*욱(5001), 최*현(5410)

3+4월호 교통안전 실천 다짐



황*경(3176) 최*희(9876) 이*빈(3608) 방*녀(0725) 서*민(8666)



「신호등」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당첨자 및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모바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상품 발송 시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선물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호등」에 게재된 내용의 오류를 발견해 아래 연락처로 제보해주시길 경우, 감사의 의미를 담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문의. 02-2090-1105 (신호등 편집실)

신호등과 함께 만드는 도로교통 안전 생활

「신호등」 정기구독 안내

- 「신호등」은 다양한 도로교통 소식과 교통안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발행하는 교통안전 종합정보지입니다.
- 「신호등」은 매 홀수달 초순에 발행됩니다.
- 구독 신청 및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신청·해지·주소 변경 방법

- ① 독자엽서
- ②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신호등」 정기구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호등」 안내

교통안전 종합정보지 「신호등」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만나 보세요.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온라인에서도 「신호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 구독 신청 연간 이벤트 당첨자 안내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간현생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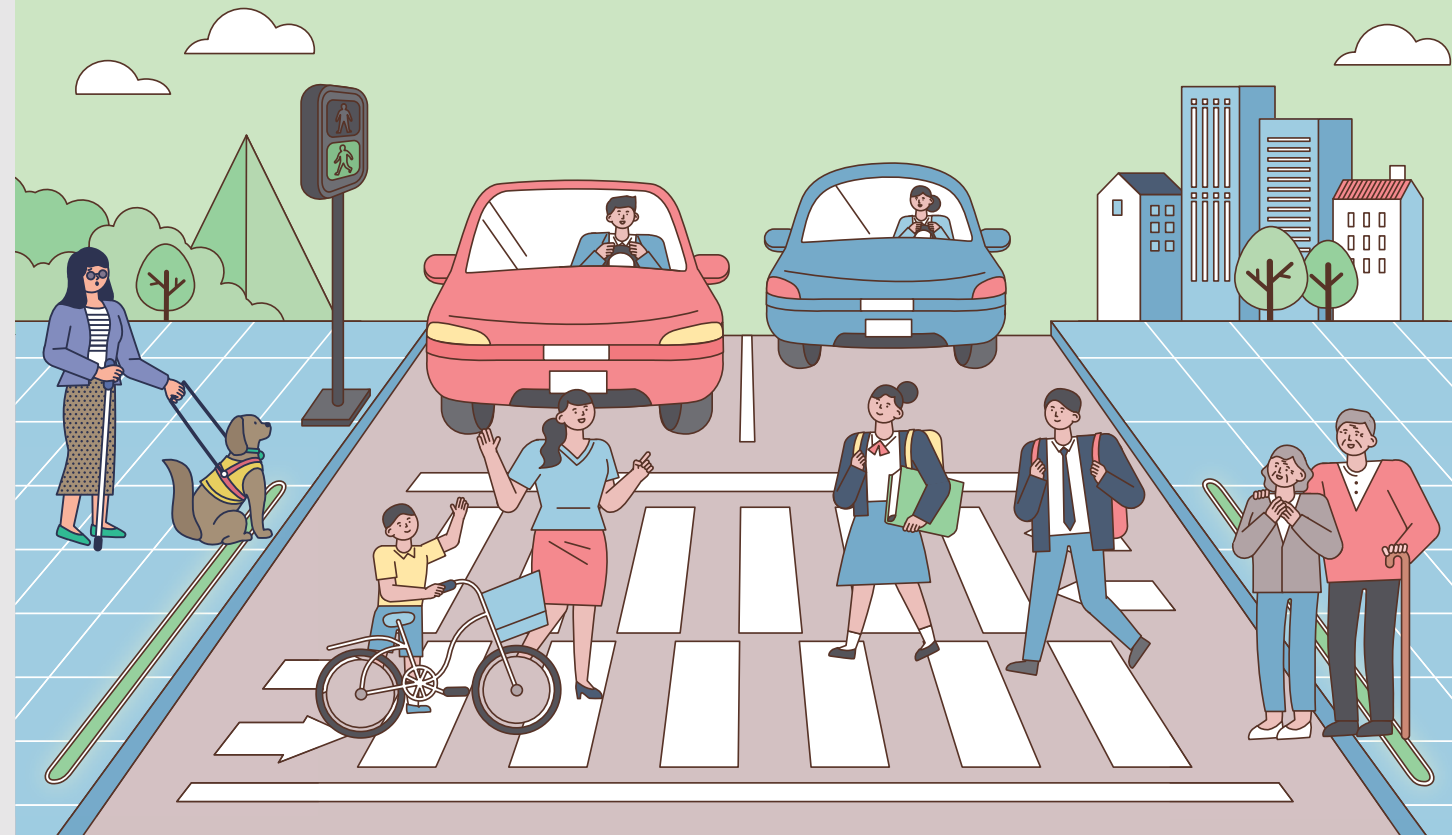
추천 내용

서곡천과 섬강이 만나는 곳으로 버드나무, 소나무가 서원주역과 어울려 운치가 있다. 한적한 곳이라 철새들이 많이 보였다.

당첨자: 김*규(1161)

* 연간 이벤트 내용은 60쪽을 확인하세요.

2025년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국민참여 공모전



공모기간

'25년 4월 1일(화) 09시 ~ 6월 27일(금) 17시

공모주제

교통 약자(어린이·노인) 보행자 보호,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준수, 안전운전,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을 반영하여 학과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주제 대상

공모방법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통해 양식 작성하여 문장형, 사진형, 안전표지형 중 선택 응모

공모자격

누구나 참여 가능

시상내역

총 상금 300만원(상품권)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감사장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3명)	장려상(13명)
50만원 이사장 감사장	30만원 이사장 감사장	20만원	10만원

결과발표

2025년 9월 중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연락)